

#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난 해소 큰 힘

### 고창군, 외국인근로자 정책만족도 72%...인건비 안정·생산성 향상 전국 최초 적정인건비 조례 시행·근로자 기숙사 등 유입 사업 추진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아무진 손이 고령화와 이촌 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지역 17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만족도가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는 농번기인 7-9월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 1800명의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해 농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매년 일손부족으로 애타웠던 농가들의 인건비 안정화는 물론, 풀밭으로 놀리던 밭에 작물을 심으면서 농업생산성도 크게 향상됐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안정효과도 확인됐다. 농가의 62%가 남자 인건비로 10-11만원, 72%가 여자 인건비로 9-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고창군 조례에서 권고·제시한 범위 내 하한선(남자 11-13만원, 여자 9-11만원)에서 인건비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창군은 농촌인력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3대 사업으로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조

례제정·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설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수는 600여명이었지만 올해는 2배를 훌쩍 넘겼다. 이는 고창군 성송면(1677명)의 전체인구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25억원을 투입해 대산면에 연면적 95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 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9월분 재산세 73억원 부과

### 이달까지 납부

정읍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73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7만1000여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엔 발송된 고지서는 9월분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반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일괄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11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7881점 망실·훼손 등 조사...경계분쟁 예방·재산권 보호

남원시가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왔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 때에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도로나 교량 등에 설치된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7881점으로 남원시는 자체조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조사를 통해 안전, 망실, 훼손 등의 현황을 조사해 폐기 또는 복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진 지역과 필요한 지역에 181점을 추가 신설했다.

더욱 신속한 지적측량 수행이 가능해져 경계분쟁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나 인도 등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 도로 확·포장 및 개설 등으로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사전협의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긴 여름 지나 꽃무릇 사이로 가을이 오네

### 고창 선운산 주말부터 개화

고창 선운산 계곡 사이사이 가을의 전령사 ‘꽃무릇(일명 상사화)’의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가을 산행을 앞둔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선운산 꽃무릇의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 개화에 화려한 군무를 펼칠 전망이다. 꽃무릇은 통상 개화 후 열흘 정도가 절정기다.

선운산 꽃무릇은 5월께 잎이 나왔다가 7월께 지고 나면, 9월 초 꽃대가 솟아난다. 9월 하순이 되면 꽃이 붉게 피어오른다. 한 뿌리이면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화염불상견 상사초(花葉不相見 想見草)’의 그리움과 아련함을 대표하는 꽃이다. 가려진 모습과는 달리, 뿌리에는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독이 있다. 그 옛날 단청이나 탕화 보존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절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다고 전한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선운산 곳곳에서 꽃무릇을 감상하고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창 선운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선운산 일주문 앞 꽃무릇.

# ADHD 학생 치료비 1인 최대 80만원

###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시행

앞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 사용이 편리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학생 ADHD 치료를 위한 바우처 ‘마음봄 카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음봄 카드’가 도입되면 이제 학부모들은 지정된 가맹점(심리 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에 결제만 하면 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교원업무 경감도 기대된다.

특히 치료비 결제가 ‘마음봄 카드’로만 가능해지면서 ADHD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유 전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ADHD 증상은 감정조절 어려움, 또래 관계 갈등, 학업 성취 저하, 가족간 부정적 상호작용, 규칙 따르기 어려움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ADHD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정서 회복을 돕기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ADHD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1인 당 최대 80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청년들이여 즐기자, 축제를!

### 21~27일 청년 축제 주간...공연·체험 등 다채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정정지대)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청년축제 ‘주간행사 정주행: 정읍 청년 축제 주간’ 동안 행복만 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축제 첫날인 21일에는 ‘Movie 온 가족데이’를 주제로 정읍 CGV에서 ‘베데랑 2’를 두 차례 상영한다. 22일에는 청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술쇼를 시작으로 스모어 쿠키 만들기, 인어공주 무드등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차부터 6일 차까지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바쁜 일상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예코 삼파파, 이끼불, 백드림 페인팅, 자이언트 안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웨디에 클래스가 진행된다.

또 축제 주간 동안에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팀에게 여가문화 모임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모임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고창군이 추석명절 전후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5일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창군은 공직사회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명절 기간을 맞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관행적인 금품·선물 수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부정정탁과 이권개입 행위 등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품위수상

▲복무규정 준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들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태만, 군민과 구성원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적인 행정역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특별 점검 기간 중 적발된 비리 공직자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